

2021년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일반게임 부문 블록버스터, 프론티어에 의미있는 게임이 돋보였다. 신규IP와 한국을 대표하는 IP가 포진한 가운데 중소 개발사들의 새로운 시도 등 창작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.

기능성게임 부문은 수학, 영어, 한글 등 기존 교육적 목적 게임 외에도 근로기준법을 게임 형태로 재구성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. 문제 해결, 목적 지향성이 강화돼 풍성해졌다.

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한 인디게임이 많아 흥미로웠다. 전형적인 ‘귀염뽀짝+방치형’ 게임 외에도 FMV, 리듬, 항아리게임 류 등이 출품돼 다양함이 돋보였다. 인디게임 저변과 생태계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인디게임을 진흥,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증명됐다.